

종교교육학연구 제42권. pp.121-142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3. 7. 30.

사은사상의 종교교육에의 적용방향*

백 준 흠

원불교대학원대학교

요약문

〈요 약〉

사은의 큰 윤리는 상생과 공생의 원리로서 병들어 가고 있는 인류와 세상을 치료하고 살려낼 수 있는 묘약이다. 사은사상의 교리적 위치는 교리도에 잘 나타나 있다. 사은은 일원상 진리의 외현적 실재임과 동시에 죄복의 권능자로서 일원상 신앙의 근간이 되는 핵심교리라 할 수 있다. 대종사 이하 역대 스승들은 사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상생의 대도, 세계를 구원 할 길 등이 그것이다. 사은의 주요 성격으로는, 신앙의 근원, 생성존재의 근원, 윤리의 근원, 상생의 대도(원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은사상을 종교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방향으로는, 첫째,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가 있음을 일깨워 주는 관계성 인식에 대한 종교교육, 둘째,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생활 하는 종교교육, 셋째, 자리아타 즉 상생의 윤리에 대한 종교교육, 넷째, 효이념(모심의 생활)실천의 종교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들이 종교의 울을 넘어서서 적절히 활용되어 우리 사회를 따스하고 화기로운 상생의 사회로 만들어 가길 기대 해본다.

핵심 주제어 : 사은, 상생, 감사생활, 자리아타, 효이념

I. 들어가는 말

소태산(박중빈1891~1943)은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부조화 즉 인간이 물질의 노예가

* 본 연구는 2012년 11월 원불교대학원대학교 교내연구비로 실천교학연구세미나에서 발표된 원고를 수정 보완한 논문 임.

되는 현상을 우려하면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표어로써 인류의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실제로 과학문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그 문명을 유익하게 활용할 정신의 힘이 미약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 또는 상업주의, 가치혼돈으로 인한 윤리부재현상, 인간성 상실, 사회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 출세지향주의 등 부정적 현상들이 바로 그것들이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부각되었던 학교폭력의 문제 등을 볼 때, 우리의 교육현실과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의 미래가 그리 밝지도 희망적이지도 않다. 과연 왜 이렇게 안타깝고 어두운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일까. 이에 대한 진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능하겠으나 근본적 원인은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은 서로 없어서는 살수 없는 소중한 관계임을 모르는데 있다고 본다.

일찍이 소태산은 우리에게 사은의 큰 윤리를 밝혀주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윤리 뿐 아니라 천지 부모 동포 법률과 우리 사이의 윤리 인연을 원만하게 통달시키는 길¹⁾을 제시해 주었다. 이 사은의 큰 윤리는 상생과 공생의 원리로서 병들어 가고 있는 인류와 세상을 치료하고 살려낼 수 있는 묘약이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그 어느 시대보다도 원불교 은사상의 실천이 요청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은사상을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조명해보고 이를 종교교육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사은사상의 교리적 위치와 중요성

1. 일원상의 진리와 사은

원불교 은사상의 교리적 위치는 교리도에 잘 나타나 있다. 교리도를 보면 일원의 종지를 근간으로 해서 신앙문과 수행문이 두 축을 이루고 있다. 신앙문에는 사은사요의 교리가 들어 있고, 수행문에는 삼학팔조라는 원불교 교리의 대강이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은 신앙문에 들어 있는 사은사상과 일원상의 진리가 상하관계 또는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일원상의 진리와 사은은 상극과 본원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교리도의 “일원은 법신불이니 우주만유의 본원ियो”, 일원상서원문에서 “일원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यो”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대중경 교의품 4장에 강령적으로 잘 밝혀져 있다. 소태산은 일원상의 신앙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는 한 제자의 질문에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1) 『법어』, 기연편 11장, (『원불교 전서』, 원불교정화사), 1977.

구하는 것이라 하면서,

일원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만유로써 천지만물 허 공법계가 다 부처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 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지니²⁾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일원상의 내용이 바로 사은이요, 사은의 내용이 바로 일원상임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사은이 가지는 교리적 위치를 잘 시사해주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사은은 우주만유를 인간에게 사실적으로 근접 인식시키기 위한 네 가지 범주로서 인간 개개인 더 나아가 모든 존재와 개체가 진리와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를 알게 하는 개념이다.³⁾ 그래서 사은은 단순한 도덕실천의 덕목이 아니라 바로 일원상 진리의 외현적 실재로 이해되기도 한다. 즉, 일원상 진리가 만유를 생성화육케 하고(천지은), 만유를 자비생육케 하고(부모은), 만유를 상부상조케 하고(동포은), 만유를 보호 안녕케 하는(법륜은) 그 진리의 작용을 사은으로 표현해 놓은 것⁴⁾이라는 것이다. 이는 일원상의 구체적 실재, 구체적 내용은 사은이요, 사은의 구체적 실재 또는 구체적 내용은 우주만유 삼라만상인데 사은을 삼라만상에 관련지어 말하면 현상적 본질⁵⁾을 의미한다. 이처럼 일원상의 진리와 사은의 관계는 일원상에서 만유에로의 계층적 구조가 아니라 일원즉 사은이요, 사은 즉 우주 만유라는 구조로 이해를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일원상과 사은과 만유가 별립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만유를 은으로 볼 때 사은이라 이름 한 것이며, 만유를 한 체성이라 볼 때 일원상이라 이름한 것이기 때문이다.⁶⁾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은은 일원상 진리의 외현적 실재임과 동시에 죄복의 권능자로서 일원상 신앙의 근간이 되는 핵심 교리라 할 수 있다.

2. 법맥⁷⁾을 통해서 본 사은의 중요성

위에서 사은사상이 교리적 구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간략히 알아보았다. 그럼 이어서 사은사상에 대해 소태산 이하 역대 스승들은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2) 『대종경』, 교의품 4장, (『원불교 전서』, 원불교정화사), 1977.

3) 박상권, 『원불교 신앙론』, 『원불교신앙론 연구』, 1996, 68쪽.

4) 한종만, 『원불교 신앙론』, 『기념문중』, 0000?, 129. 한편 노권용 교수는 『원불교 법신불 신앙의 의의와 과제』에서 사은은 법신불의 화현으로서 보은 불공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5) 송천은, 『원불교 신앙관의 연구』, 『일원상 진리의 제연구』, 원대, 83쪽.

6) 송천은, 『원불교 신앙관의 연구』, 『일원상 진리의 제연구』,

7) 여기서 말하는 법맥이란 소태산 대종사 이하 역대 종법사를 의미한다.

먼저, 소태산은 교법의 총설에서 사은으로서 신앙의 강령을 삼아야 원만한 종교가 될 수 있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에서 공부의 요도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술과 같고, 인생의 요도는 환자를 치료하는 약재와 같다고 하여 인생의 요도 즉, 사은이 인류를 살리는 중요한 요소임을 환자치료에 있어 약재로서 비유하고 있다. 또한 심고와 기도 장에서는 자신할 만한 타력을 법신불 사은이라 규정하고, 이 사은을 신앙의 근원으로 삼아 심고와 기도를 정성스럽게 하면 사은의 위력을 얻어 원하는 바를 이루고, 낙 있는 생활을 하게 된다⁸⁾고 밝히고 있다. 이는 모든 인류가 원하는 바와 낙생활이 바로 사은에서 비롯됨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한편 소태산은 어떤 것을 큰 도라 할 수 있느냐는 한 제자의 질문에,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고 명확히 답을 한다. 그러면서 일원종지를 포함해서 사은은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된다⁹⁾고 하였다. 이처럼 사은을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실행해야 할 중요성을 지닌 천하의 큰 도로 그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 교의품 4장에서 일원상의 내역은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은 곧 우주 만유로서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다고 전제하면서, 천만 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 법신불 사은이 우리에게 죄 주고 복 주는 증거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자상히 설명하여 주면 알기도 쉽고 믿기도 쉬운 것¹⁰⁾이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이는 천지만물 즉 사은이 복락의 근원이요, 죄복의 출처임을 잘 밝혀주고 있다.

또한 세상의 큰 병을 치료하는 큰 방문은 곧 우리 인생의 요도인 사은 사요와 공부의 요도인 삼학 팔조라 전제하고, 이 법이 널리 세상에 보급된다면 세상은 자연 결함 없는 세계가 되어 다시없는 이상의 천국에서 인류가 낙원을 수용하게 될 것¹¹⁾이라 하였다. 사은의 중요성은 소태산의 열반을 앞두고 내린 다음과 같은 부촉의 법문에도 잘 나타나 있다.

나의 교법 가운데 일원을 종지로 한 교리의 대강령인 삼학 팔조와 사은 등은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다시 변경할 수 없으나, 그 밖의 세목이나 제도는 그 시대와 그 국가에 적당하도록 혹 변경할 수도 있나니라¹²⁾ 고 하여

일원상의 진리를 비롯하여 신앙의 강령이자 교리의 핵심인 사은은 어떤 시대와 상황이 당하더라도 결코 변경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이처럼 소태산은 사은을 천

8) 『정전』, 제3 수행편, 제9장 심고와 기도, (『원불교 전서』, 원불교정화사), 1977.

9) 『대종경』, 교의품 2장.

10) 『대종경』, 교의품 10장 참조.

11) 『대종경』, 교의품 35장.

12) 『대종경』, 부촉품 16장.

하 사람이 믿고 실천해야 할 천하의 큰 도임을 밝혀주었다. 동시에 사은사상은 개인적으로는 신앙의 강령으로서 신앙의 근원과 죄복의 출처요 사회적으로는 세상의 큰 병을 치료하는 큰 방편으로서 결함 없는 세계를 이루는 중요한 길임을 가르쳐주었다.

다음 정산종사가 바라본 사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정산종사는 과거에 모든 부처님이 많이 지나가셨으나 소태산의 교법처럼 원만한 교법은 전무후무하다고 하면서,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사은의 큰 윤리를 밝히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윤리 뿐 아니라 천지 부모 동포 법률과 우리 사이의 윤리 인연을 원만하게 통달시켜 주었기 때문¹³⁾이라고 하였다. 이어 정산종사의 아래 법문에서도 사은의 중요성이 잘 드러나 있다.

대종사는 이 우주의 진리 가운데 상생의 도를 주로 드러내사 우리가 네 가지 큰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을 밝혀 주었나니, 그대들은 대종사의 상생 대도인 사은의 교리가 만생령을 제도하는 가장 큰 길이며 사중보은의 도리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임을 깨달을지니라¹⁴⁾ 고 하여

사은이 상생의 대도로서 만생령을 제도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가장 큰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산종사는 사은이 모두 우리의 복전이라 하였고,¹⁵⁾ 평등의 윤리와 천륜을 담고 있으며,¹⁶⁾ 독경해역의 위력을 지닌 위대한 법임¹⁷⁾을 강조하였다.

한편 대산종사는 사은은 세계를 구원할 길로서 은이요, 뜨거운 정의며, 대자대비¹⁸⁾라 하였다. 그러면서 일원즉 사은에서 죄복이 나오는 것을 실질적으로 신봉하고 늘 산 불공을 직접 올리는 대실천력으로써 백역화신불을 나투라고 하였으며, 또한 대산종사의 사은에 대한 중요성 언급은 원기 64년도 신년법문에 매우 잘 나타나 있다.

우리는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곧 사대은(四大恩)의 은혜를 떠나서는 한때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사은은 바로 우리 생명의 근원이요, 만유상생의 기본윤리임을 밝혀 주셨다. 그러므로 천지만물 어느 것 하나가 서로 은혜로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 은은 바로 뜨거운 정의요, 정의는 곧 도덕으로서 이 도덕이 행해져야 천하가 좋아질 것이니 사은은 바로 세계평화의 기본인 것이다¹⁹⁾라 하여

사은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요 만유상생의 기본윤리로서 세계평화의 기본임을 명확히 밝혀줌으로써 사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외에 좌산 상사도 우리는 사은 없이는

13) 『법어』, 기연편 11장. 기연편 16장에서는 사은이 시방세계 일체중생의 윤리를 두루 통하게 하는 광대한 도리라고 강조하였다.

14) 『법어』, 경의편 8장.

15) 『법어』, 기연편 11장.

16) 박정훈, 『한울안 한 이치에』, 일원의 진리 8, 1995.

17) 박정훈, 『한울안 한 이치에』, 평상심, 4.독경해역으로 삼가 새해를 축하함, 1995.

18) 『정전대의』, 6.일원상서원문, 원불교출판사, 1977.

19) 『대산종사법문집』2, 원기64년 신년법문.

살 수 없는 존재로서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사은의 공물임을 가르쳐주었다. 동시에 감사보 은하면 은혜가 풍성하고, 원망배은하면 재앙의 죄벌이 따르게 됨²⁰⁾을 분명히 밝혀주었다. 그의 사은사상에 대한 중요성은 보은성구조(報恩省九條)²¹⁾에 잘 드러나 있다.

- 1)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발견하여 감사하고 있는가.
 - 2)사은과 혈액이 통하는 은혜를 느끼며 나의 행동 전부가 온통 보은 활동으로 바뀌었는가.
 - 3)천만역경이 나를 괴롭히고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추호의 원망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태연 하면서 보은의 마음을 잃지 않겠는가.
 - 4)숙겁다생에 몽쳐 온 원한이라도 유감없이 풀고 은화(恩化)시킬 수 있는가.
 - 5)백번 잘못 해도 백한번 용서해 주어 은화하여 줄 수 있는 아량이 있는가.
 - 6)이 은(恩)을 영겁다생토록 변하지 않게 할만한 자신이 있는가.
 - 7)순역간 일체경계와 선악인연을 다 같이 은용(恩用) 은화시킬 수 있는가.
 - 8)시방세계 육도사생을 남김없이 은화 시키고 일체생령들 사이에 한 생령이라도 상극 없이 다 상생의 은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가.
 - 9)천지만물 허공법계와 삼라만상에서 무한한 은을 발견하여 남김없이 개척 활용 할 수 있는가.
- 사은에 대한 보은은 우주만유와 윤기가 통하게 하는 길이요, 우주만유를 은으로 만드는 길이요, 우주만유를 선연으로 만드는 길이요, 우주만유를 복전으로 만드는 길이다 라고 하여

사은에 대한 보은의 중요성을 명확히 밝혀줌으로써 사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천을 강조해주고 있다.

Ⅲ. 원불교 사은사상에 대한 분석

1. 사은에 대한 기본적 이해

소태산은 대각을 이루고 난 뒤에 스스로 깨닫게 된 그 경로를 돌이켜 생각하다가 문득 “자력으로 구하는 중 사은의 도움이라”²²⁾ 라고 하였다. 이 사은사상은 원불교 교리의 중심적 위치에 있다. 이 사은은 인간을 포함한 우주만유가 생성발전 하는 데 있어 서로 바탕이 되고 근원이 되며 도움이 되어서 피차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를 은으로 천명 하여 크게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라는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일원상의 진리가 우주만유의 본체적 원리의 파악이라면 은은 우주만유의 현상적 존재 파악으로서 일원상 진리의 구체화가 곧 사은이다.

20) 상사원, 『좌산상사 범문집:교법의 현실구현』, 원불교출판사, 2007, 198쪽 참조.

21) 좌산상사, 원기85년도 범문.

22) 『교사』, 제1편 개벽의 여명, 1.교법의 연원, (『원불교 전서』, 원불교정화사), 1977.

그럼 원불교의 은이 가지는 근원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소태산은 정전 사은의 내용 가운데 피은의 강령²³⁾ 각각에서 잘 밝혀주고 있다. 천지은의 천지 피은의 강령에서는 “천지가 없어도 이 존재를 보존하여 살 수 있을 것인가”, 부모은의 부모 피은의 강령에서는 “부모가 아니어도 이 몸을 나타내게 되었으며 설사 나타났더라도 자력 없는 몸으로서 저절로 장양될 수 있을 것인가”, 동포은의 동포 피은의 강령에서는 “사람도 없고 금수도 없고 초목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라도 살 수 있을 것인가”, 법률은의 법률 피은의 강령에서는 “법률이 없고도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살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 이에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가 있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오” 라고 답을 함으로써 은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라는 존재의 근원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 존재의 근원적 위력으로서의 은은 우주의 삼라만상을 4가지 형상으로 분류하여 천지, 부모, 동포, 법률로 연결시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다.

이처럼 사은을 나와 천지, 나와 부모, 나와 동포, 나와 법률로 관계 지어 설명해 줌으로써 그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은하는 구체적 생활을 하도록 해 주었다. 결국 진리의 당체요 인과위력의 당체로서 죄복의 바탕인 이 사은사상은 세계평화와 세계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2. 사은의 주요 성격

다음은 사은이 지니고 있는 주요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뜨거운 정의로서 세계를 구원할 길²⁴⁾을 제시하고 있는 사은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인가.

첫째, 사은은 신앙의 근원이다. 그 근거는 법당에 왜 일원상을 모시냐는 후자의 질문에 답하는 소태산의 아래 법문에 잘 나타나 있다.

서가모니 불상이 우리에게 죄 주고 복 주는 증거는 사실적으로 해석하여 가르치기가 어려우나, 일원상은 곧 청정 법신불을 나타낸 바로서 천지·부모·동포가 다 법신불의 화신이요, 법률도 또한 법신불의 주신 바이라 이 천지·부모·동포·법률이 우리에게 죄 주고 복 주는 증거는 얼마든지 해석하여 가르칠 수가 있으므로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신 것이니라²⁵⁾ 고 하여

법신불의 화신으로서의 사은이 우리 인간에게 죄복을 줄 수 있는 권능자임을 밝혀 줌으로써 사은이 신앙의 근원이 됨을 가르쳐 주고 있다. 또 정전 심고와 기도 장에 보면 우리는 자신할만한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알았으니, 이 원만한 사은으로써 신앙의 근원을 삼아 사은의 위력을 얻어 원하는 바를 이루고, 낙 있는 생활을 하자고 하였다. 이

23) 『정전』, 제2 교의편, 제2장 사은 피은의 강령.

24) 『정전대의』, 7.사은.

25) 『대종경』, 교의품 9장.

는 우리가 불공이나 심고기도 등을 행하면 진리의 위력이 천지 부모 동포 범람이라는 사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미쳐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산종사는 일원상을 신앙한다는 것은 죄복 인과를 실지 주재하는 사은의 내역을 알아 각각 그 당처를 따라 실제적 신앙을 세우고 일을 진행하는 것²⁶⁾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사은은 인과 위력의 주체이고 죄와 복의 바탕이며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근거로서 신앙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둘째, 사은은 생성존재의 근원이다. 소태산은 우주만물이 존재하는 근원적 힘을 은으로 파악하였다. 사은 각각에 대한 피은의 강령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은이 만물의 생성존재의 근원임을 한마디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란 말로 명확히 해주고 있다. 즉, 천지가 만유 존재를 생성케 해주고, 부모 역시 우리의 육신을 생성케 해주며, 동포도 생성의 원리로 작용하며, 범람 역시 우리 모두를 생성하게 해주는 원리로 작용한다는 것이다.²⁷⁾ 또한 사은이란 만유가 생성하고 있는 까닭을 밝히고, 변화하는 이치를 밝히며, 서로 관련지어 있는 천륜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사은이란 생성의 근원으로서 종교적 신앙의 대상임과 동시에 생성의 연계관계로서 도덕적 윤리의 규범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²⁸⁾ 이처럼 사은은 생생약동하는 한 기운으로 만물을 생성시키며 모든 생명체를 변화 발전시켜가는 원동력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셋째, 사은은 윤리의 근원이다. 인생의 요도 사은 사요는 자기중심이 아닌 만물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도리 내지는 역할을 바르게 해 가야함을 가르쳐 준 인생의 바른 길이다. 그 중에서 사은은 신앙의 측면에서 보면 신앙의 근원이 되고, 윤리적 측면에서 보면 천하윤리의 기본 강령이 된다. 일찍이 정산종사는 윤리란 협의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리에 맞게 하는 것이며, 광의로는 천지와 사람 사이의 도리에 맞게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그러면서 과거 성현들은 좁게 인륜만 밝히셨으나 소태산은 사은 가운데 천지는 까지 넣어서 천륜까지 밝혔으므로 원불교의 윤리가 가장 원만하다²⁹⁾고 밝힌바 있다.

또한 그는 소태산의 교법이 사은의 큰 윤리를 밝히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윤리뿐만 아니라 천지 부모 동포 범람과 우리 사이의 윤리 인연을 원만하게 통달시켜 주었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법³⁰⁾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소태산 비명병서에도 “일원의 진리로서 천만 사리를 다 통일하고 사은의 윤리를 밝혀 종래에 서로 막혔던 윤리를 다 통하게 함으로써 모든 윤리가 원융회통 하도록 하였다.”³¹⁾ 고 하여 사은이 만유를 회통시키는 윤리임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사은은 천지와 우리, 부모와 우리, 동포와 우리, 범람과 우리 사이에 행

26) 『법어』, 원리편 3장 참조.

27) 박현목, 『원불교 은사상 연구』, 원광대학교, 불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0, 118쪽.

28) 이은석, 『정전해의』, 원불교출판사, 1985, 102쪽 참조.

29) 박정훈, 『한울안 한 이치에』, 지혜단련1, 원불교출판사, 1995.

30) 『법어』, 기연편 11장 참조.

31) 박정훈, 『정산종사전』, 원불교출판사, 2002,

해져야 할 근본 윤리를 제시하고 있다.

넷째, 사은은 상생의 대도이다. 사은이 상생의 대도 또는 상생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소태산이 사은 장에서 밝히고 있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자리이타의 도”와 최초법어의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에 아주 잘 나타나 있다. 정산종사도 우리의 법은 새 세상의 상생 대도³²⁾라고 단언하였고, 사은이 상생의 대도임을 아래 법문을 통해 잘 밝혀주고 있다. 그에 의하면,

소태산 대종사는 이 우주의 진리 가운데 상생의 도를 주로 드러내사 우리가 네 가지 큰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을 밝혀 주었나니, 그대들은 대종사의 상생 대도인 사은의 교리가 만생령을 제도하는 가장 큰 길이며 사중 보은의 도리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임을 깨달을지니라³³⁾ 고 하여,

상생의 도로써의 사은에 대한 중요성과 실천을 당부하였다. 한편 대산종사도 우리는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곧 사은의 은혜를 떠나서는 한때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사은은 바로 우리 생명의 근원이요, 만유상생의 기본윤리임³⁴⁾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사은은 상생·상화·공존·평화의 원리로서 세상을 구원하여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위대한 길인 것이다.

3. 사은에 대한 해석과 설명

일찍이 정산종사는 “대종사께서는 이 우주의 진리 가운데 상생의 도를 주로 드러내사 우리가 네 가지 큰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을 밝혀 주시었나니, 그대들은 대종사의 상생 대도인 사은의 교리가 만생령을 제도하는 가장 큰 길이며 사중 보은의 도리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임을 깨달을 지니라 고 하여 사은의 중요성과 실천을 당부하였다.

대산종사님도 은혜를 알아 보은하면 이세계가 다 복전이 되고 은혜의 내역을 모르거나 혹 안다 할지라도 배은망덕하면 이 세계가 다 죄전으로 화한다 하며 은혜를 발견하여 보은감사의 생활을 해야 함을 가르쳐 주었다.

그럼 여기서 상생과 세계평화의 대도인 사은의 주요 내용을 원문에 근거하여 살펴보자.

첫째, 사은은 나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를 지니고 있다. 즉, 나는, 우리는 사은의 공물이라는 것이다. 천지가 없이는 나의 존재를 보존하여 살 수가 없다. 하늘의 공기와 땅의 바탕과 일월의 밝음, 풍운우로의 혜택, 천진의 생멸 없는 도가 있기에 내가 존재할

32) 『법어』, 국운편 30장.

33) 『법어』, 경의편 8장.

34) 『대산종사법문집』2, 제4부 신년법문, 사중보은으로 세계평화를(원기64년 신년 법문 중에서).

수 있는 것이다. 부모가 아니고서는 내가 태어나지도 장양되지도 못할 일이다. 부모가 있기에 만사 만리의 근본 되는 이 몸을 얻게 되었고, 무자력할 때에 양육하고 보호하여 주셨으며,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 주셨기에 내가 심신 간에 건강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동포의 도움과 동포의 의지 그리고 동포의 공급이 있기에 내가 인간다운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다. 사농공상과 초목금수의 도움이 있기에 나의 삶이 가능한 것이다. 수신하고 제가하는 법률과 사회, 국가, 세계를 다스리는 법률이 있기에 내가 안녕과 질서 속에 평안히 살 수 있다.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있기에 내가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사은은 대시주, 대자비, 대협동, 대보호의 은을 제공하고 있다.³⁵⁾ 천지는 공기, 땅, 일월광명, 풍운우로 등의 은혜를 응용무념의 도로서 나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부모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무자력자 보호의 도라는 대 자비의 크신 은혜로 해 주었다. 동포는 자리아타의 도에 근거하여 사농공상이 서로 크게 협동하며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법률은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에 근거하여 도덕과 정치의 입법 그리고 다스리는 법을 통해 대보호의 은혜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사은에 대한 보은을 위해서는 피은의 도를 체 받아 보은조목을 실천해야 한다. 대산종사님은 사은에 피은 된 도를 체 받아서 보은하면 곧 부처가 되고 성인이 되며 천지가 된다³⁶⁾고 하였다. 사은에 피은 된 도는 천지은의 응용무념의 도, 부모은의 무자력자 보호의 도, 동포은의 자리아타의 도, 법률은의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는 도를 말한다. 이른바 무념보시의 도, 약자보호의 도, 상부상조의 도, 준법지계의 도에 근거하여 보은의 각 조목을 실천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좌산 상사도 보은성구조의 법문에서 사은에 대한 보은은 우주만유와 윤기가 통하게 하는 길이요, 우주만유를 은으로 만드는 길이요, 우주만유를 선연으로 만드는 길이요, 우주만유를 복전으로 만드는 길이라 하여 생활 속에서 사은에 대한 보은 생활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넷째, 사은의 은혜 속에 살고 있으니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보은의 생활을 하자는 것이다. 소태산은 사은의 각각에 대해서 피은의 강령, 피은의 조목, 보은의 강령, 보은의 조목, 배은의 의미, 보은의 결과, 배은의 결과에 대해 간이하면서도 명료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러한 설명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내용은 바로 사은의 공물이니 생활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여 늘 감사 보은의 생활을 통해 한량없는 복과 낙을 장만해 가자는 것이었을 것이다. 대산종사는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것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생활 하는 것 보다 더 크이 없고 세상에서 잘 못 사는 것은 해독을 발견하여 원망생활하는 것 보다 더 크이 없다³⁷⁾ 하여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생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임을

35) 『정전대의』, 제7, 사은 참조.

36) 『정전대의』, 제7 사은 참조.

37) 『대산종사법문』2집, 제4부, 신년법문, 사중보은으로 세계평화를 참조.

강조하였다. 이 세상은 은혜로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나 또한 은혜의 덩치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만이 소중한 은혜로움을 느끼며 무한한 감사보은의 생활을 하게 된다. 순역경계 간에 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때 사은님의 은혜가 더 더욱 깊어지고 커 나갈 것이다.

Ⅳ. 사은사상의 종교교육에 적용방향

앞에서 사은에 대해 기본적으로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성격 등을 원문과 역대 스승들의 법문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그럼 본 장에서는 그런 사은사상을 토대로 하여 사은사상이 지니고 있는 종교교육적 요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1. 관계성 인식에 대한 종교교육

관계성 인식(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에 눈뜨는 종교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불교에서 말하는 존재법칙은 은적 관계의 법칙이다. 모든 존재들은 다른 존재들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를 보존하고 유지하고 있다. 이런 관계를 하나의 개체적 존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른 존재들이 그 개체를 존재하게 하는 필연적 원인으로 제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³⁸⁾ 이러한 관계의 필연성을 소태산은 사은 각각의 피은의 강령에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³⁹⁾라고 명확히 밝혀주었다. 천지 피은의 강령에서는,

우리가 천지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천지가 없어도 이 존재를 보전하여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렇다면 아무리 천치요 하우자라도 천지 없어서는 살지 못할 것을 다 인중할 것이다.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가 있다면 그 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라 하여,

하늘의 공기와 땅의 바탕과 일월의 밝음, 풍운우로의 혜택, 천지의 생멸없는 도 등을 포함한 천지가 없이는 나라는 존재는 잠시도 살 수가 없음을 잘 밝혀주고 있다. 또 부모 피은의 강령에서는,

우리가 부모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부모가 아니어도 이 몸을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으며, 설사 나타났더라도 자력 없는 몸으로서 저절로 장양될 수 있었을

38) 박상권, 「은적 유기체로서의 생명」, 『원불교사상』제22집, 원불교사상연구원, 1998, 607쪽.

39) 「정전」 제2교의편, 제2장 사은.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렇다면 누구나 그렇지 못할 것은 다 인정할 것이다. 부모가 아니면 이 몸을 나타내지 못하고 장양되지 못한다면 그 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라 하여,

부모가 아니고서는 내가 태어나지도, 장양되지도 못할 일이며, 사람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 주었기에 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다음은 동포 피은의 강령에서,

우리가 동포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사람도 없고 금수도 없고 초목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라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렇다면 누구도 살지 못할 것은 다 인정할 것이다. 만일, 동포의 도움이 없이, 동포의 의지가 없이, 동포의 공급이 없이는 살 수 없다면 그 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라 하여

동포의 도움과 동포의 의지 그리고 동포의 공급이 있기에 내가 인간다운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고, 사농공상과 초목금수의 도움이 있기에 나의 삶이 가능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 마지막 법률 피은의 강령에서는,

우리가 법률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개인에 있어서 수신하는 법률과, 가정에 있어서 제가하는 법률과 사회에 있어서 사회 다스리는 법률과, 국가에 있어서 국가 다스리는 법률과, 세계에 있어서 세계 다스리는 법률이 없고도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살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것이니, 그렇다면 누구나 살 수 없다는 것은 다 인정할 것이다. 없어서는 살 수 없다면 그 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라 하여,

수신하고 제가하는 법률과 사회, 국가, 세계를 다스리는 법률이 있기에 내가 안녕과 질서 속에 평안히 살 수 있고,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있기에 내가 평안히 살아갈 수 있음을 잘 밝혀주고 있다. 이처럼 소태산은 천지만물 허공법계 즉 우주의 삼라만상을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라는 사언으로 분류하고, 이들과 나와의 관계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임을 밝혀줌으로써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바른 윤리를 가르쳐준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사회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인간과 자연을 파편화 시키고 분열시킴으로써 서로 대립하고 투쟁하게 하는 적자생존의 냉혹한 모습을 지녀왔다고 본다. 특히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온갖 핑계와 명분을 가지고 수많은 생명체들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있다고 본다. 최근 우리 사회의 교육현장에서 일어났던 학교폭력의 실상이나, 성폭행 사건 등은 우리가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임을 잘 모르는 소치의 산물이라 생각한다. 이제 인간들은 인간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생명체들은 인간과 조금도 틀림이 없는 소중한 생명체요, 동포임을 자각해야 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愿이라는 하나의 생명체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

야 한다. 이 은이라는 우주의 큰 생명은 일체생명의 공동체적 생명이며 개체의 생명은 그 공동체적 생명의 자기 분화인 것이다. 따라서 다른 생명체를 경시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는 바로 자신의 생명을 경시하고 파괴하는 것임을 자각케 하여 생명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인간이 되도록 종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감사생활(고마움 표시하기)에 대한 종교교육

감사생활(고마움 표시하기)에 대한 종교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위에서 관계성의 인식 즉 인간을 포함해서 우주만유와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가 있음을 종교교육에서 일깨워주어야 함을 말했다. 이제 것처럼 유기체적이면서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감사생활 또는 감사보은의 생활에 대해 종교교육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원불교 사은사상의 핵심내용은 우리가 사은의 은혜 속에 살고 있으니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보은의 생활을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태산은 사은의 각각에 대해서 피은의 강령, 피은의 조목, 보은의 강령, 보은의 조목, 배은의 의미, 보은의 결과, 배은의 결과에 대해 간이하면서도 명료하게 밝혀 주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바는 바로 우리가 사은의 공물이니 생활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여 늘 감사 보은의 생활을 통해 한량없는 복과 낙을 장만해 가자는 것이었다.

정산종사도 개인으로 부터 세계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요구는 하면서도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은 서로 은혜를 모르거나 알고도 보은의 실행이 없기 때문이라⁴⁰⁾고 하면서, 감사생활만 하는 이는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만 하는 이는 늘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받으리라⁴¹⁾고 하여 감사보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원망생활 조차도 지혜로 돌리고, 진리로 돌리고, 실천으로써 감사생활로 돌릴 수 있어야 한다⁴²⁾고 하여 감사생활을 역설하였다. 한편 대산종사는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것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생활하는 것보다 더 큼이 없고 세상에서 잘못 사는 것은 해독을 발견하여 원망생활 하는 것보다 더 큼이 없다 하면서 지은보은하면 사은이 곧 복전이 되고, 배은망덕하면 사은이 곧 죄전이 되는 것⁴³⁾이라 하여 은혜를 알아서 감사보은의 생활을 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처럼 소태산 이하 역대 스승들은 감사생활(고마움 표시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럼 어떻게 감사생활을 해가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40) 『법어』, 법훈편 59장.

41) 『법어』, 도운편 28장.

42) 박정훈, 『한울안 한이치에』, 일원의 진리 11,

43) 『정전대의』, 제 7사은, 보은의 필요.

소태산은 사온에 대한 보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었다. 천지은에 대한 감사보은의 방법으로 여덟 가지를 제시해 주었다. 그 내용을 보면,

1.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체 받아서 천만 사리(事理)를 연구하여 걸림 없이 알 것이요,
2.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를 체 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에 간단없이 시종이 여윌하게 그 목적을 달할 것이요,
3. 천지의 지극히 공정한 도를 체 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에 원·근·친·소(遠近親疎)와 희·로·애·락(喜怒哀樂)에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중도를 잡을 것이요,
4. 천지의 순리 자연한 도를 체 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에 합리와 불합리를 분석하여 합리는 취하고 불합리는 버릴 것이요,
5. 천지의 광대 무량한 도를 체 받아서 편착심(偏着心)을 없이 할 것이요,
6. 천지의 영원불멸한 도를 체 받아서 만물의 변태와 인생의 생·로·병·사에 해탈(解脫)을 얻을 것이요,
7. 천지의 길흉 없는 도를 체 받아서 길한 일을 당할 때에 흉할 일을 발견하고, 흉한 일을 당할 때에 길할 일을 발견하여, 길흉에 끌리지 아니할 것이요,
8. 천지의 응용 무념(應用無念)한 도를 체 받아서 동정간 무념의 도를 양성할 것이며, 정신·육신·물질로 은혜를 베푼 후 그 관념과 상(相)을 없이 할 것이며, 혹 저 피은자가 배은망덕을 하더라도 전에 은혜 베풀었다는 일로 인하여 더 미워하고 원수를 맺지 아니할 것이니라 고 하여,

천지은에 보은하는 길은 천지의 8가지도를 체 받아 실행하는데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 부모은에 대한 감사보은의 방법으로,

1. 공부의 요도(要道) 삼학·팔조와 인생의 요도 사온·사요를 빠짐없이 밝을 것이요,
2. 부모가 무자력할 경우에는 힘 미치는 대로 심지(心志)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드릴 것이요,
3. 부모가 생존하시거나 열반(涅槃)하신 후나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보호할 것이요,
4. 부모가 열반하신 후에는 역사와 영상을 봉안하여 길이 기념할 것이니라 고 하여,

공부의 요도를 밝아 원만한 인격을 이루고, 인간을 포함한 우주만물에게 자기의 도리 내지는 역할을 다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부모은에 대한 감사보은의 생활임을 밝히고 있다. 동시에 자신의 부모에게 심지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은 물론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를 내 부모같이 보호하는 것이 부모은에 대한 감사생활임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어 동포은에 대한 감사보은의 방법으로는,

1. 사는 천만 학술로 교화할 때와 모든 정사를 할 때에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써 할 것이요,
2. 농은 의식 원료를 제공할 때에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써 할 것이요,

- 3.공은 주처와 수용품을 공급할 때에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써 할 것이요,
- 4.상은 천만 물질을 교환할 때에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써 할 것이요,
- 5.초목금수도 연고 없이는 꺾고 살생하지 말 것이니라 고 하여,

사농공상으로 인간을 범주화 하고 상호간에 공정한 자리에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동포은에 대한 감사보은의 길임을 밝혀줌과 동시에 초목금수 까지도 함부로 살생하지 않는 것이 동포은에 감사보은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률은에 대한 감사보은의 방법으로는,

- 1.개인에 있어서는 수신(修身)하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 2.가정에 있어서는 가정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 3.사회에 있어서는 사회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 4.국가에 있어서는 국가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 5.세계에 있어서는 세계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니라 고 하여,

개인을 비롯 국가 세계에 이르기 까지 각각의 주체가 법률 즉,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법률은에 대한 감사보은의 길임을 밝혀주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태산은 나와 사은과의 관계 속에서 그 대상 대상에 꼭 필요한 감사보은의 방법을 강령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사 보은의 조목들을 시대에 맞게 응용하여 누구나가 현실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종교교육 영역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어느 종교를 신앙하든 또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든 간에 생활 속에서 감사표현하기 운동, 감사편지하기, 감사인사하기, 칭찬해주기, 장점 말해주기, 사랑의 메시지 보내기, 감사 댓글 달기, 자연과 감사의 대화 나누기 등을 실천하도록 종교교육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사은에 대한 감사운동이 보편화될 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폭력의 문제, 인권문제, 빈부의 문제 등이 자연스레 정화됨과 동시에 개개인의 마음도 화기로움으로 가득한 따스한 사회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3. 상생의 윤리에 대한 종교교육

상생의 윤리에(더불어 살기)대한 종교교육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소태산은 우주만물은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즉 서로 은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 상생의 윤리란 자기중심적, 개인주의적, 이기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자리이타(더불어 살기)의 행을 의미한다. 이는 대결의 원리가 아니라 개인 가정 사회국가 세계가 상호간에 서로 소중한 관계임을 인식하고 서로의 공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상생의 윤리에 대한 강령적인 내용은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과 동포은에 잘 밝혀져 있다.

먼저, 강자 약자의 진화상 요법에 보면,

강·약의 대지(大旨)를 들어 말하면 무슨 일을 물론하고 이기는 것은 강이요, 지는 것은 약이라, 강자는 약자로 인하여 강의 목적을 달하고 약자는 강자로 인하여 강을 얻는 고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바탕 하여 친 불친이 있나니라. 강자는 약자에게 강을 베풀 때에 자리 이타법을 써서 약자를 강자로 진화시키는 것이 영원한 강자가 되는 길이요, 약자는 강자를 선도자로 삼고 어떠한 천신만고가 있다 하여도 약자의 자리에서 강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진보하여 가는 것이 다시없는 강자가 되는 길이니라⁴⁴⁾ 하여,

강자는 약자를 대할 때 자리이타의 도를 실행하고, 약자는 강자를 대할 때 선도자로 삼고 진급을 추구해 감으로써 강자와 약자가 서로 의지하고 바탕 하여 함께 진화하게 된다는 상생의 도를 아주 간명하게 잘 밝혀주고 있다. 또한 동포보은의 조목에서 보면,

사는 천만 학술로 교화할 때와 모든 정사를 할 때에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써 할 것이요, 농은 의식 원료를 제공할 때에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써 할 것이요, 공은 주처와 수용품을 공급할 때에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써 할 것이요, 상은 천만 물질을 교환할 때에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써 할 것이요, 초목금수도 연고 없이는 꺾고 살생하지 말 것이니라⁴⁵⁾ 하여,

사농공상이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각각의 분야에서 서로 공정한 입장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이타의 도 즉, 상생의 윤리를 실행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더 나아가 유정무정의 초목금수와도 상의상자 즉,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바탕 삼는 윤리적 태도를 제시해주고 있다. 또한 정산종사도 사은사상이 지니고 있는 상생의 윤리 실천이 중요함을 아래 법문에서 잘 밝혀주고 있다.

소태산 대종사는 이 우주의 진리 가운데 상생의 도를 주로 드러내사 우리가 네 가지 큰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을 밝혀 주었나니, 그대들은 대종사의 상생 대도인 사은의 교리가 만생령을 제도하는 가장 큰 길이며 사중 보은의 도리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임을 깨달을지니라⁴⁶⁾

한편 대산 종사도 동포는 우리에게 자리이타로써 대협동이 되었으니 우리도 그 도를 체받아서 서로 돕고 복돋우면 보은이 되는 동시에 내가 곧 사생의 지친(至親)이 되며 일체 동포는 자연 공생공영할 것이다⁴⁷⁾ 라 하여 자리이타의 도 즉, 상생의 윤리 실천을 강

44) 『정전』, 제3 수행편, 제13장 최초법어, 3.강자 약자의 진화상 요법.

45) 『정전』, 제2 교의편, 제2장 사은, 제3절 동포은, 4.동포보은의 조목.

46) 『법어』, 경의편 8장.

47) 『정전대의』, 제7장 사은, 사은의 실천 요지.

조하였다. 특히 대산종사는 상생의 윤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리이타의 도를 넘어서서 자해타리의 도 까지도 실천할 수 있어야 함을 다음 법문에서 잘 밝혀주고 있다.

영세 무궁토록 잘 살 수 있는 표준은 대종사님께서 밝혀 주신 자리이타이다. 이 표준은 서양에 가도 좋고 동양에 와도 좋고, 현생에도 좋고 내생에도 좋다. 자리이타로 나도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롭고 표준 잡고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도이며 영세(永世)이익의 표준이다. 또 동포 보은의 강령인 자리이타가 이것이다. 그러나 부득이 안 될 때에는 해(害)를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영세의 표준이다.⁴⁸⁾

4. 효이념(모심)에 대한 종교교육

효이념(모심의 생활)실천의 종교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부모로부터 낳아주신 은혜. 길러주신 은혜. 가르쳐주신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감사보은 생활로서 효를 실천해야 한다. 소태산은,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간에 우애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 간에 불목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나니, 그러므로 유가에서 “효(孝)는 백행(百行)의 근본이라” 하였고, “충신(忠臣)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하였나니, 다 사실에 당연한 말씀이니라⁴⁹⁾ 고 하여

효가 모든 행위의 근본이요 가정의 행복과 사회 발전의 근간이 됨을 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또한 정산종사도 경의편 59장에서,

효라 함은 무슨 일이나 보은의 도를 행하는 것은 다 효에 속하나니 이는 모든 보은 가운데 부모 보은이 제일 초보가 되는 까닭이라, 그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이가 어찌 다른 은혜를 먼저 알며 널리 천지와 동포와 범물의 근본적 은혜를 알게 되리요. 그러므로, 효의 실행은 부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모든 은혜를 발견하는 데에 있나니, 사람 사람이 이 모든 은혜를 발견하여 어느 처소 어느 시간을 막론하고 천만 경계를 오직 이 감사 하나로 돌리는 것이 다 효의 활용 아님이 없는지라, 이는 옛날 세상에 좁은 해석으로 부모가 자력이 있는 때에도 평생을 그 곁을 떠나지 않는 것만 효로 생각하고 사회의 모든 책임과 일체의 보은 행사에 등한하는 등의 일면적인 효가 아니니, 그러므로, 효의 의의는 실로 광대하고 원만하여 천하 고금에 길이 세상의 강령이 되고 인도의 비릇이 되나니라. 현하 시대의 인심을 본다면 효에 병들이 또한 오래인지라 가정에 있어서는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에 나오면 천지와 동포와 범물을 원망하여 세상 공기가 침울하여 지고 인간 생활이 위협에 당하나니 이 위험한 시국을 돌이켜서 평화 안락한 세상을 만들기로 하면 무슨 방법으로든지 이 효의 정신을 진흥하여 모든 인심이 효에 돌아오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어려울 것이니

48) 『대산종사법문』3집, 교법 43장.

49) 『대종경』, 인도품 11장.

라⁵⁰⁾ 고 하여

효의 실행이 사은에 보은하는데 있으며, 이런 보은적 효의 실행이 있어야 평화안락한 국가 사회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대산 종사도, 부모는 사랑을 다하고 자녀는 효도를 다하는(父慈子孝) 윤리로써 인류를 구원하자⁵¹⁾ 고 하시어 효의 실천이 인류평화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으로 효 내지는 모심의 종교교육을 해야 할 것인가? 이에 소태산은 부모 보은의 조목, 즉 효의 실천 방안으로 네 가지를 밝히고 있다. 그 내용을

1. 공부의 요도(要道) 삼학·팔조와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를 빠짐 없이 밟을 것이요,
2. 부모가 무자력할 경우에는 힘 미치는 대로 심지(心志)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드릴 것이요,
3. 부모가 생존하시거나 열반(涅槃)하신 후나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보호할 것이요,
4. 부모가 열반하신 후에는 역사와 영상을 봉안하여 길이 기념할 것이니라⁵²⁾ 고 하여,

부모에게 효를 행하려면 먼저,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를 잘 실천해야 하고, 부모에게 심지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내 부모라는 국한을 넘어서서 타인의 부모도 내 부모와 같이 보호해야 하며,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부모의 역사와 영상을 잘 간직하여 후손 대대로 기념하게 해야 함을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를 빠짐없이 밟는다는 것에 대해 좀 더 보편적 설명을 하기로 하자. 효의 실천을 위해 공부의 요도를 밟는다는 것은 종교적 시각으로는 수행을 통해 성불 즉, 불보살의 인격을 이루자는 것이고, 보편적 시각으로 보면 종교의 가르침을 통해 원만한 인격 즉, 사람다운 모습을 갖추어 행실 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생의 요도를 밟는다는 것은 사람과 이 사회 그리고 이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도리 내지는 자기 역할을 잘하여 매사에 은혜와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사회적으로 건강한 인간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종교교육의 현장에서는 위의 내용 들을 근거로 해서 효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자기 부모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나의 부모만이 아닌 모든 부모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어른들, 더 나아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부모와 같이 정신 육신 물질로 받들고 모시도록 잘 가르쳐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왔던 것처럼 특별한 날에, 특별한 것으로 효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기 생활의 한 순간 순간 속에서, 자신의 인격을 길러가고, 관계 속

50) 『법어』, 경의편 59장.

51) 『대산종사 법문』3집, 제2 교법 64, 부모보은.

52) 『정전』, 제2 교의편, 제2장 사은, 제2절 부모은.

에서 자기 도리를 다하면서, 일체 부모를 향해 정신 육신 물질로 보은하고 모심의 생활을 하는 것이 진정한 효의 실천임을 종교 교육에서는 잘 가르쳐주어야 할 것이다

V. 나오는 말

오늘의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성직자 아니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새삼 종교인의 사명에 대해 생각해본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종교가 존재하고 있지만 종교인으로 간과해서는 안될 일은 종교를 위해서 인간과 사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를 위해서 종교가 존재할 뿐이라는 사실이다. 자칫 종교의 본질적인 면 즉 성자들의 근본정신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해 볼 일이다.

현재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학교 폭력,⁵³⁾ 성폭행 사건, 문지마 폭력 행위, 자살부모 상해 사건, 자살 사건, 온갖 사기 행위 등이 발생하여 우리 사회를 어둡고 더욱 각박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각 종교는 종교 본연의 사명과 사회적 역할에 냉철한 평가를 해보아야 하며, 사회정화와 사회 구성원들의 인성을 바로 세워주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21세기를 향한 종교교육도 각기 접근 방법은 다르겠지만 이러한 종교 본질 또는 성자정신에 입각해서 세상을 바르게 하고 일체생령을 이롭게 하는 참다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그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종교의 교리를 알리고 신자화를 추구하는데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본다. 종교교육의 참 모습은 인간본연의 종교성을 함양시켜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의 주체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원불교의 종교교육도 이러한 기본적 입장을 토대로 해서 인간성 회복과 상생·평등의 윤리도덕, 생명의 윤리에 대한 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체적 실천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원불교 사은 사상을 근간으로 한 종교 종교교육이 실행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실천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부디 이러한 내용들이 종교의 울을 넘어서서 적절히 활용되어 우리 사회를 따스하고 화기로운 상생의 사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53) 요즘 학교 폭력은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문헌

〈경전〉

원불교 전서

대산종사 법문집1

대산종사 법문집2

대산종사 법문집3

〈논문 및 단행본〉

고시용, 『원불교 교리 성립사』, 한국학술정보, 2012.

고시용, 「다문화사회와 원불교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 연구』제36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11.

김귀성, 『학교에서 종교교육의 이해』, 문음사, 2010.

김귀성, 「불교계대학에서 종교교육의 문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제27집, 원불교사상연구원, 2004.

김팔곤, 「사은윤리의 현대적 의미」, 『원불교사상』제6집, 원불교사상연구원, 1982.

노권용, 「사은사상의 신앙적 의미 재조명」,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제41집, 원불교사상 연구원, 2009.

류성태, 『정전풀이』상하, 원불교출판사, 2009.

박상권, 「원불교 신앙론」, 『원불교신앙론 연구』, 1996.

박상권, 「은적 유기체로서의 생명」, 『원불교사상』제22집, 원불교사상연구원, 1998.

박상권, 「원불교 일원상 진리와 사은의 관계에 관한 논의 고찰」,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제52집, 원불교사상연구원, 2012.

박정훈, 『한울안 한 이치에』, 원불교출판사, 1995.

박정훈, 『정산종사전』, 원불교출판사, 2002.

박현묵, 『원불교 은사상 연구』, 원광대학교, 불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0.

박희중, 「원불교에서의 종교교육과 인권」, 『종교교육학 연구』제41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12.

송천은, 「원불교 신앙관의 연구」, 『일원상 진리의 제 연구』, 1989.

송천은, 『일원문화산고』, 원불교출판사, 1994.

상사원, 『교법의 현실구현』, 원불교출판사, 2007.

이은석, 『정전해의』, 원불교출판사, 1985.

정순일, 「은사상에 대한 또 하나의 시각」,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제41집, 원불교사상연구원, 2009.

한기두, 「법신불 사은에 대한 고찰」, 『원불교사상』제20집, 1996.

한종만, 「사은신앙에 관한 연구」, 『원불교사상』제19집, 1995.

원고접수일: 2013년 5월 30일 심사일: 6월 19일 게재확정일: 7월 5일

연구자소개: 백준흠

① 전공: 원불교학 / 소속: 원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

② 관심영역: 원불교 실천교학

③ 주요논저: 「원불교 신앙강화를 위한 과제」, 「원불교 훈련법의 특징과 활성화 방안」,
「원불교 마음공부에 관한 연구」, 「정전을 통한 마음공부 방법에 관한 연구」,
「영성에 대한 원불교 교리적 고찰」, 「원불교 교화단에 관한 연구」, 「원불
교 교당 교화구조 개선방안 연구」, 「원불교 종교교육에서의 영성교육(생활
영성 교육)」, 「이단치교 구현을 위한 제언」

④ E-mail: gunhum@hanmail.net

Abstract

Application Direction for the Fourfold Grace Thought on Religious Education

Back, Junhum

Won-Buddhism Graduate School

The grate ethics of the Fourfold Grace, as a principle of symbiosis, is a specific medicine for to rescue mankind and the world to be taken ill. The doctrine position of the Fourfold Grace thought well be exposed the Doctrinal Chart. The Fourfold Grace is core doctrine to be the root and the trunk of the faith of Il-Won-Sang, as the outside reality of the truth of Il-Won-Sang and competency of blessing and sin. Great Master and successive the Head Dharma Master emphasized importance of the Fourfold Grace. It is that, for example, relationship wherein we cannot live without the other, the law of Reciprocal Symbiosis, a rescue way of the world. The Fourfold Grace have character of the fount of faith, creation and being, ethics, the law of Reciprocal Symbiosis. The direction, for to apply the Fourfold Grace thought on religious education, is necessary for, first, religious education to awaken recognition of relationship wherein we cannot live without the other, second, grace of discovery and life of gratitude, third, mutual benefit namely, Symbiosis of ethics, fourth, practice of filial piety(life of supporting parents). I expect, this substance of religious education go over to the religion and properly practical use, that our society become symbiosis society of warm and peaceful.

Key words : Fourfold Grace, symbiosis, life of gratitude, mutual benefit, practice of filial piety.